

<서평>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D. A. 카슨(Carson)

김은홍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84쪽

김학철*

특정한 책이 고전으로 불린다면, 이는 그 책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책이 다루는 주제의 보편성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논증을 통한 주제의 해명이 그 두 가지 요소이다. 1951년에 발행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기독교계의 ‘고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물론 책 출판 당시에도 니버의 논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니버의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복음주의’ 신약 학자라는 자의식이 뚜렷한 D. A. 카슨은 니버의 책을 발판 삼아 오늘날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나는 통상적인 서평의 순서에 따라 그 책의 주요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의 공헌과 한계를 살피려 한다.

* 연세대학교 교수, 신약학

1. 간략한 요약

‘머리말’을 제외하고 이 책은 1.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니버 재고, 2. 성경신학으로 고찰한 니버의 유형론, 3. 문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4.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권력, 5. 교회와 국가, 6. 논박 받는 의제, 좌절된 유토피아,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 등 총 6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설명하고 분석한다. 니버의 유형들을 점검하면서 유형을 세우는 기준을 세세히 점검한다. 또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클리포드 기어츠 등이 제안한 ‘문화’ 개념을 설명한다.

제2부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이른바 성경신학을 적용하여 니버의 유형론을 비판하고, 비판의 근거를 명료히 한다. 가령 니버의 다섯 가지 유형론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인 “문화의 그리스도” 유형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또 니버가 암묵적으로 지지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유형 역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보편주의적 희망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신약 학자인 카슨은 니버가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관해 꽤 많은 지면을 들여 살펴본다.

이후 카슨이 니버를 비판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도 뚜렷이 제시된다. 카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니버가 제시한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타락과 그 결과는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선택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대신 그리스도인은 전체적인 역사적-성서적 관점(the wholesale acceptance of the historical-Biblical perspective) 앞에 서야 한다. 그 관점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항목들이란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과 율법’, ‘그리스도와 새 언약’, ‘언어야 할 천국과 두려워해야 할 지옥’이다.

제3부는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다소 전문적인 논의이다. 거기서 그는 두 용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의들을 요령 있게 제시하려 한다. 제4부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를 왜곡하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네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토론한다. 네 가지 요소는 세속화, 민주주의, 자유, 권력이다. 이 네 가지는 “성경의 스토리 라인과 우선순위들의 규범적 구조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348)¹⁾

제5부는 교회와 국가라는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뜨거운 논의를 전개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루는 이 책의 본격적인 토의에 꼭 들어맞는 주제는 아니다. 이곳에서 카슨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역사를 찬찬히 살피고 여러 개념들을 명료하게 하는 데 힘쓴다.

제6부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다양한 기독교 그룹의 좌절된 의제와 성공하지 못한 유토피아적 꿈을 논의한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근본주의자, 루터와 그의 계승자들, 아브라함 카이퍼, 최소주의적 기대들, 후기 기독교 왕국 관점들, 박해받는 이들의 관점이 논의된다.

2. ‘복음주의자’ 카슨이 니버를 논박하는 방식

책을 읽기 시작한 후 저자인 ‘복음주의자’ 카슨에 대한 선입견을 수정해야 할 듯한 문장을 발견했다.

1) 괄호 안의 숫자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쪽수이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종합적 문화 분석 역시 역사를 두루 다룬 포괄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엽 자유주의 개신교(Liberal Protestantism) 유산의 정점에 있던 한 서구인의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12)

서구 지성의 겸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카슨은 이내 ‘복음주의자’ 카슨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경험들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지 않지만 “이런 신경과민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어떤 것을, 초월적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13)고 말한다. 물론 초월적인 것은 카슨이나 카슨이 대표하는 진영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카슨은 니버에 대해서 ‘멋진’ 논법을 편다. 카슨에 따르면 니버는 그리스도라는 객관적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언어로 모두 해명될 수 없다고 한다. 이후 카슨은 이렇게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니버는 기독교 세계의 지배적인 흐름들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초상들을 ‘그리스도’로 수용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32)

니버는 그리스도를 역사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니버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무한히 유동적인 개념’이 아님은 카슨은 잘 알고 있다. 니버는 모르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른바 기독교사에서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가까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슨은 니버 논지의 불가피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반박하고자 한다.

니버가 끌어안은 ‘그리스도’에 관한 해석의 폭은 의심의 여지없이

지나치게 넓다. 고백적 기독교의 형식들 안에 자신을 제한하려고 애쓰며 분명하고 의식적으로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말이다.(33)

니버는 한순간에 고백적 기독교의 형식 밖에 서기를 꺼리지 않으며 성경의 권위 아래 있기를 답답해하는 인물이 되어 버렸다. 카슨에 따르면 니버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한 이해는 ‘반(半) 성경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니버의 이해가 ‘반(半)’ 성경적이라면 옹근 성경적 이해는 누구의 것일까? 당연히 그 고귀한 진주는 니버의 견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카슨이나 카슨이 대변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글을 쓸 때 고마운 참고문헌은 기존의 이론과 정보를 명쾌히 정리해 준 책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마운 참고문헌은 그 분야에 명망 높으면서도 논쟁거리가 될 만한 몇몇 주장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돋보이도록 하는 책이다. 카슨에게는 니버의 책이 딱 그러한 책이다. 책 전반에 걸쳐 카슨은 위에서 두 차례 소개한 논법을 되풀이한다. 곧 니버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복음주의자’로서 논박하는 것이다.

3. 카슨의 핵심적 주장의 공헌과 한계

카슨은 니버의 방식, 다시 말해 문화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신학적으로 취해왔던 다섯 가지 방식 모두에 일정한 신학적 세례를 내려주는 니버의 태도를 경계한다. 대신 카슨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설정은 이른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규범을 만드는 규범(the norming norm)이기에,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설정 역시 성경의 관점 아래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 신학적 관점이란 카슨이 말한 ‘전체적인 역사적-성경적 관점’을 뜻하는데, 그 관점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진리의 항목들을 상수(常數)로 엮어 만든 별자리와 같다.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과 율법, 그리스도와 새 언약, 언어야 할 천국과 두려워해야 할 지옥들이 카슨에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별들’이다. 그리고 별들이 만든 별자리는 나름의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를 헤쳐 나갈 방향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카슨이 발견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카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창조된 질서 전반에 대해 책임성, 곧 지배와 돌봄의 책임성을 갖고 있다. 카슨의 책을 서평한 림(Timothy Lim)은 카슨 견해의 종착지를 니버 식으로 하면 “문화에 대적하는 그리스도”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²⁾ 림의 평가가 빛나갔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카슨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지배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들을 생산해내는 것이며, 성경 신학적 관점이라는 확실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화를 평가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만이 카슨이 말한 성경 신학적 성찰 속에서 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입장이다.

신약학을 전문 분야로 학계에 이름을 알린 카슨의 연구는 평가하기에 간단하지가 않다. 그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독서를 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문화에 관련하여 저자의 폭넓은 지식과 세밀한 분석은 이 분야에 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가 니버를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 다시 말해 그의 전문 분야인 성서학을 동원하여 ‘성경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곳

2) Timothy Lim,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review),” *Religious Studies Review* 35/2 (2009), 115.

에는 날카로운 반대 의견이 제출될 것이다. 가령 프란시스(Mark R. Francis)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책 전체에 걸쳐 다른 사회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와 같은 인류학자의 작품을 사용하는 카슨의 작업은 정보가 넘치고 공정한 반면 왜 그와 같은 정교함이 그가 제안하는 성경 신학 곧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규범을 만드는 규범(norma normans)을 다루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중략- 성경이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카슨)는 성경이 우연적인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될 수밖에 없는 중재된(mediated) 계시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최소한의 성경 해석학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³⁾

나아가 프란시스는 카슨이 성경을 그것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 신약학을 전공으로 하는 카슨에게 프란시스의 비판은 사뭇 거칠어서 무례하게까지 보인다. 그러나 프란시스의 비판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카슨이 주장한 성경 신학적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항목들, 곧 타협될 수 없는 항목들로 제시된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과 율법, 그리스도와 새 언약, 언어야 할 천국과 두려워해야 할 지옥들에 관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왜 그것들인가? 왜 그것들이 진리를 구성하는 불변 값인가?

카슨이 선택한 주제들이 성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왜 하필 그것들인가’라는 학자들의 날선 질문에 카슨이 설득력 있게 답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다른 항목들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는가? 이집트 탈출이라는 원형적 해방 사건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또 카슨이 제시한 항목들을 하나로 꿰는 해석적

3) Mark R. Francis,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review),” *Worship* 83/1 (2009), 89-91. 인용은 90.

틀에 관해서는 지난한 문제 제기가 거듭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구속사적 시각에서 성경이 조망되어야 한다고 논박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계약을 해석의 틀로 내세울 것이다.

또한 카슨은 성서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가볍게 취급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그는 ‘전체’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 이 말에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동시에 누가 ‘전체를 균형 있게’ 강조할 수 있겠는가? 가령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타락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고 카슨에게 비판당한 사람은 도리어 카슨에게 “그대는 타락과 그 결과를 강조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약화시킨다.”고 역비판을 하지 않을까? 성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강조되는 관점은 어디에, 누군가에게 있던 말인가? 카슨의 서랍 속에?

나는 글 머리에 ‘고전’으로 간주되는 책의 두 요소를 말했다. 카슨의 책의 주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글의 논증은 ‘복음주의’라는 진영 내에서 비판적으로 통용될 듯하다. 기독교와 문화를 다룬 글로 이루어진 명예의 전당을 방문한 관람객은 아직까지 니버의 책 외에 다른 책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복음주의 신학 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해 펼쳐 놓은 생각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문화에 관한 깔끔한 정리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과 지적 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고 세련되게 하려는 이들에게도 이 책은 좋은 훈련 대상이 될 것이다.

* 접수일 2010년 3월 5일, 수정일 2010년 3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0년 3월 25일